



ncia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건강 빨간불을 꺼주는 건강관리지원센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이우철)는 지난 2009년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맺고 만성성인질환 예방·관리, 금연클리닉 등으로 건강한 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철저한 보안으로 둘러싸인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한 점심시간. 탁구대 앞으로 직원들이 모인다. 탁구시합이 시작된 것이다. 체력단련실, 스쿼시장에도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삼삼오오 들어와 운동을 시작한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도 챙긴다고 한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등 22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기관으로 2007년 11월 개원했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일명 '대외비 일급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때문에 직원들은 해킹과 서비스 장애, 보안문제 등으로 연중 살얼음판을 걷는 긴



장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전 직원의 35%(36명)가 광주지역 비연고자여서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부족, 음주 등으로 만성질환에 노출된 상태다.

2009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금연우수기관으로 선정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직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2009년 2월 18일 사내에 '건강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해 체성분 분석기와 혈압계, 신장체중비만측정기 등 7종의 기초의학 검사 기구를 비치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11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건강관리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만성성인질환 예방·관리와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41명 중 16명이 금연에 성공해 2009년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금연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운동과 취미를 위한 동호회 활동도 활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는 또 운동과 취미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연구모임 4곳과 취미동호회 7곳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터 내 탁구, 테니스, 농구, 스쿼시, 헬스, 산책로 등 운동시설을 구비해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두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이 정도면 건강한 기업이라 자랑할만하지 않은가. **MEDI**CHECK



Mini Interview

탁구치고 등산하는
이우철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

“직원들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늘렸어요”

“행복의 첫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이우철 센터장은 사내에서 이른바 '미스터 스마일'로 통한다. 타고난 낙천적 성격에다 긍정적 사고, 웃음이 그만의 건강비결이다. 자연스럽게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사내 일각에서 '흡연권'에 대한 불멘소리도 있지만,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센터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센터장은 사내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매일 점심식사 후에는 탁구 동호회원들과 탁구를 즐긴다. 사내 탁구대회 복식조에서 우승할 정도로 실력도 수준급이다.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이뒀저뒀' 회원들과 함께하는 산행에도 빠지지 않고 있다.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 해 건강을 해치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건강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센터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직원들의 건강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